

## 001

| 2013년 3월 고3 전국연합 A형 12번 |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절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

보기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른다	
② 기능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 002

| 2016년 6월 고2 전국연합 12번 |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그리고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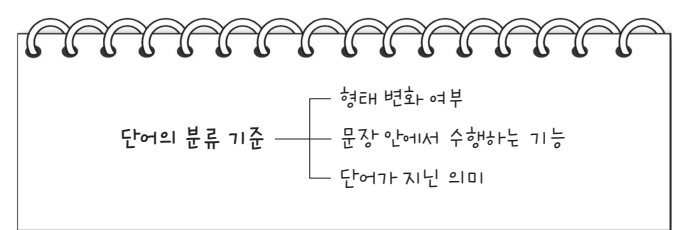
[나] 열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 ① ㉠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 ② ㉡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이다.
- ③ ㉢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 ④ ㉢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 ⑤ ㉢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 003

| 2017년 11월 고1 전국연합 11번 |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윈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004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13번 |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르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이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 005

| 2007학년도 수능 13번 |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 006

| 2010년 3월 고2 전국연합 12번 |

〈보기〉의 '어떤 체언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언들은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한다.

- ① 그는 사소한 실수로 야기될지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 ② 그 투수는 무릎 부상의 악재를 딛고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 ③ 강연자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 ④ 그녀는 다가와 남자처럼 악수를 청했고, 나는 일팔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 ⑤ 종갓집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 007

| 2007년 4월 고3 전국연합 11번 |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② 배가 고프니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 ③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 ④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다리가 제대로 놀지 않았다.
- ⑤ 그는 세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쉬었다.

## 008

|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 12번 |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인칭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 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 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의 지칭할 때 쓰인다.

보기 2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 들 : ㉠ 누가 왔는지 ㉡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 택배 왔습니다.  
 아 들 :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꽃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 네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으란다.

- ① ㉠ : 부정칭 대명사                      ② ㉡ : 일인칭 대명사
- ③ ㉢ : 미지칭 대명사                      ④ ㉣ : 재귀 대명사
- ⑤ ㉤ : 이인칭 대명사

## 009

|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010

| 2009학년도 수능 11번 |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 나는 ㉢ 그쪽에서 ㉣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셨으면 해요.
이건 ㉠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책을 묵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를 줄인 말이겠군.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011

| 2014학년도 수능 A/B형 14번 |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012

| 2009년 3월 고3 전국연합 9번 |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다'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이것이 책이다. / 이것이 책이니 / 이것이 책이면 / ...
ㄴ. 2시가 가까워서이다. / 그것은 나부터이다. / 내가 먼저이다.
ㄷ.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 땅 짚고 헤엄치기다.

- ① ㄱ을 보니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용언처럼 활용하는군.
② ㄴ을 보니 앞에 붙는 말이 받침이 없을 때 '이-'를 생략할 수 있군.
③ ㄱ과 ㄴ을 보니 체언, 용언의 어미, 조사, 부사 뒤에 붙는군.
④ ㄴ과 ㄷ을 보니 자립성이 있는 단어와 결합될 때에는 주어가 생략되는군.
⑤ ㄱ~ㄷ을 보니 다른 말에 붙어서 서술의 기능을 갖게 하는군.

013

| 2010년 11월 고2 전국연합 12번 |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목적격은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체언 + 목적격 조사(을/를)'의 형태로 성립된다.
㉠ 나는 독서를 즐긴다. / 그는 책을 사랑한다.
ㄱ. 그는 눈썹 더 사랑할까?
ㄴ. 나는 사과를 좋아해. / 나는 사과를 좋아해.
ㄷ. 나는 너만을 좋아해. / 나는 너를 좋아해.
ㄹ. 나는 영수와 만났다. / 나는 영수를 만났다.
ㅁ.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

- ① ㄱ : 목적격 조사가 '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② ㄴ :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는'이 쓰이기도 하는구나.
③ ㄷ : 체언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 다른 보조사 '만'이 올 수도 있구나.
④ ㄹ : 부사격 조사 '와'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구나.
⑤ ㅁ :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구나.

014

| 2008년 11월 고1 전국연합 11번 |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격 조사 '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집(의) 밖에서 손님이 소리쳤다.
ㄴ. 내 고향, 제 사정, 네 일
ㄷ. 우리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것이다.

- ① '의'를 생략할 때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군.
② '의'가 생략되더라도 체언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군.
③ '의'가 인칭 대명사 '나, 저, 너'와 결합하면 축약되는군.
④ '의'가 결합한 체언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군.
⑤ '의'를 생략할 경우는 앞과 뒤의 체언이 의미상 동격일 때이군.

016

| 2007년 4월 고3 전국연합 12번 |

<보기 1>은 '에서'에 대한 뜻풀이의 일부이다. <보기 2>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1
ㄱ.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ㄴ.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ㄷ.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보기 2
a.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b.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c.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d. 그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일이다.
e.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Table with 3 columns: ㄱ, ㄴ, ㄷ and 5 rows of options (a-e).

015

| 2009년 7월 고3 전국연합 11번 |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에'와 '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사람들이 하나들 공원 ㉠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의자 ㉡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 ㉢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음악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 ㉣에서 일어나 한곳 ㉤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앞 ㉥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 ㉦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 ① ㉠은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군.
② ㉡, ㉢은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였군.
③ ㉣, ㉤과 달리 ㉥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군.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은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⑤ ㉦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는군.

017

| 2008년 3월 고2 전국연합 11번 |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오늘은 조사 '와/과'가 사용된 문장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와/과'가 쓰인 문장 중, 어떤 것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누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설명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문장 중 그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일까요? 단, 주어진 문장 외의 다른 상황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 철수와 영수는 잠잔다.
나. 철수와 영수는 친하다.
다. 철수와 영수는 싸웠다.
라. 철수와 영수는 마주쳤다.
마. 철수와 영수는 헤어졌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 018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12번 |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했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 019

| 2016년 7월 고3 전국연합 12번 |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 ① ‘국수라도 먹으렴.’에서의 ‘라도’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에서의 ‘는’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 020

| 2018년 3월 고2 전국연합 11번 |

밑줄 친 말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 중의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조사는 체언이 문장 속에서 다른 말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격 조사,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접속 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구분된다.

- ①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 ② 시험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
- ③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보셨다.
- ⑤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

### 021

| 2008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보기 1

- ‘마는’: 몇몇 종결 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 )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 )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 )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 )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022

| 2006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재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 023

| 2014년 9월 고2 전국연합 A형 12번 |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의 설명】**  
보조사 ‘도’는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 체언뿐만 아니라 연결 어미나 부사,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되어 ‘더함’이나 ‘동격’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다음 수업 자료를 보면서 ‘도’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볼까요?

**【수업 자료】**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때까지 신나게 뛰어 놀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함께 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평소에도 잘 먹지 않던 나물 반찬이 많아 밥만 먹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반찬도 먹으라며 나무라셨다. 저녁을 대충 먹고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 ① ㉠ : 보조사 ‘도’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 ② ㉡ : 보조사 ‘도’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
- ③ ㉢ : 보조사 ‘도’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
- ④ ㉣ : 보조사 ‘도’를 통해 두 가지의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군.
- ⑤ ㉤ : 보조사 ‘도’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024

| 2012년 11월 고2 전국연합 A형 12번 |

‘보조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나는 지난 주말도 ○○미술관에 다녀왔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 그 친구는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나만 가게 되었다. ㉢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은 나뿐일 것이다. ㉣ ○○미술관에서 버스 정류장은 멀지만 전철역은 가까워서 전철을 타고 갔다. ○○미술관에는 추상화부터 설치 미술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어서 ㉤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행복해진다.

- ① ‘도’에 주목하면, ㉠에는 ‘나’가 지난 주말 이전에 ○○미술관에 간 경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만’에 주목하면, ㉡에는 ○○미술관에 가기로 한 ‘나’의 결정이 친구들의 결정과 같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뿐’에 주목하면, ㉢에는 ‘나’ 이외의 친구들은 미술관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은’에 주목하면, ㉣에는 ○○미술관에서 전철역까지의 거리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마다’에 주목하면, ㉤에는 ‘나’는 ○○미술관에 가 있는 시간이 항상 행복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025

|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디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 026

| 2006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 ① ㄱ의 ‘께서’, 예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027

| 2015년 10월 고3 전국연합 A형 12번 |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은/\*는) 학교에 가고, 나(\*은/는) 집에 갔다.
  - 민수(가/는) 운동(을/은) 싫어한다.
  - 나는 점심에 국수 먹었는데 너는 무엇을 먹었어?
  - 어서요 읽어 보세요.
  - 빵만으로 살 수 없다.
- (\*는 비문법적인 표현임.)

- ① 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군.
- ② 격 조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군.
- ③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기도 하는군.
- ④ 보조사는 체언뿐 아니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군.
- ⑤ 보조사는 격 조사와 결합할 때 격 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군.

028

| 2014년 6월 고1 전국연합 12번 |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동생이 책을 읽는다. / 여기가 천국이다.
- ㄴ. 엄마와 나는 영화를 보았다. / 나랑 동생은 학교로 갔다.
- ㄷ. 오늘은 물만 마셨다. / 오늘은 물도 마셨다.
- ㄹ. 꽃이 예쁘게도 피어 있다. / 천천히만 가거라.
- ㅁ. 이것이 좋다. / 이것 좋다. / 이것만으로도 좋다.

- ① ㄱ : 앞의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 준다.
- ② ㄴ :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 ③ ㄷ : 앞의 체언을 다른 품사로 만들어 준다.
- ④ ㄹ :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부사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한다.
- ⑤ ㅁ : 생략하거나 둘 이상 겹쳐 쓰이기도 한다.

029

| 2009년 6월 고2 전국연합 11번 |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한 결과이다. ㉠~㉣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습 자료	• 옷에 단추를 달다. • 과일은 대부분 맛이 달다.		
문제 제기	‘달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학습 결과	결합 방법	동사	형용사
	의도를 나타내는 ‘-려 한 다’를 붙여 본다.	○	×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를 붙여 본다.	○	×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붙여 본다.	×	○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 다’를 붙여 본다.	×	○	
※ ○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능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030

| 2007년 3월 고3 전국연합 11번 |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잘못 맞힌 사람은?

선생님 :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있다’와 ‘없다’는 다른 용언과 달리 활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있다’와 ‘없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 어간과 어미의 결합 방식 ※

	㉠	㉡	㉢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 ‘-는’			
동사	○	×	○
형용사	×	○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 : ×

- ① 철현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② 영미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③ 동국 : ㉢로 보아 ‘없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④ 선경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⑤ 광민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031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33번 변형 |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기 1〉  
 〈보기 2〉의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약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된다.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032

| 2011년 6월 고2 전국연합 11번 |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가 보조 용언으로 사용된 것은?

○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예)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 : ‘버렸다’는 ‘가다’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

-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
-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
- ⑤ 봄에는 제주도도 여행을 가고 싶다.

033

| 2013년 11월 고2 전국연합 B형 13번 |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날씨가 덥다.
- ㄴ. 날씨가 더워 온다. / 날씨가 더워온다.
- ㄷ.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 / \*철수가 밥을 먹고갔다.
- ㄹ.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 영희가 종이배를 접었다. + 영희가 종이배를 띄웠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 ㄴ으로 볼 때,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하는군.
- ② ㄴ의 경우,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③ ㄷ으로 볼 때,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하는군.
- ④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군.
- ⑤ ㄴ~ㄷ으로 볼 때, 두 용언이 어울려 쓰일 경우 ‘-아/어’, ‘-고’와 같은 어미로 연결되는군.

034

| 2016학년도 수능 A형 13번 |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 A :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 A :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 A :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 A :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 A :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